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나는 양의 문 II

(요 10:7-9)

이종윤 원로목사

양들은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하며 반드시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3. 유일한 목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요 10:8상)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 이전에 온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바로 그가 도적이요 강도라는 말입니다.

절도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가져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이런 의미로 교회 지도자 가운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절도와 강도의 특징은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나타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딤후 3:5).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입니다(계 2:15).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이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요 6:44)의 말씀과 다른 의미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린 아기는 불꽃이 아름다우니까 그쪽으로 기어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른 뛰어가서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아기는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한다고 떼를 씁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것은 아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 뜻인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44와 10:9절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4. 인격적 교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요 10:9상)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이다, 오라, 믿으라, 사랑하라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객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딪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훌륭한 교회의 교인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는 줄 알면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추상적인 원리나 개념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접촉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를 보면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어 부르시는데 그중 부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중생의 체험을 갖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거듭나는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회개하여 마치 손바닥의 안팎과 같이 중생과 회개는 같이 나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 칭의(Jus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면 합법적인 절차가 끝났으므로 양자가 되고 성화(Sanctification)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Glorification)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영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주어지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둘째, 안전함을 약속받습니다.

본문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아람어로 하나의 숙어인데 안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두려움 없이 들어가고 나오며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신 28:6, 왕상 3:7, 시 121:8). 그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므로 평화의 나라인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9절의 ‘꼴을 얻으리라’는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에게 꼴을 주면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만족과 불신자들이 갖는 만족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에 갈등이 많은 이유도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어가며 말씀의 꼴, 은혜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7월 16일(토) 영·유아부 유치부, 사랑부를 시작으로

	주제	일시	장소	담당교역자
영·유아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강남희 전도사
유치부	찾았다, 하나님 나라!	7/16(토) - 17(주일)	교회	허은 전도사
유년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7/23(토) - 24(주일)	교회	조동수 목사
초등부	교회가 좋아요	7/22(금) - 23(토)	아가페타운	이대원 전도사
중·고등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7/29(금) - 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엑소더스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안용곤 목사
사랑부	함께 가는 사랑부	7/16(토) - 17(주일)	교회	전재홍 목사

방글라데시 긴급 구제

교회는 7월 6일(수)에 가진 7월 정기당회에 서 방글라데시 선교사역 중인 이경엽, 송은옥 선교사의 홍수로 인한 긴급구호 청원을 받아들여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홍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주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백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실헤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다.

이번 구제는 방글라데시 북쪽 지역에 일어난 사상 유래없는 홍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고팔바리 인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할 예정으로 피해 가정은 고라가온 62가정, 라니가온 45가정, 고팔바리 33가정, 쨤기니 67가정, 까르놀 80가정, 보이타칼리 62가정, 고빈도블 101가정, 바산꾸라 40가정, 센빠라 80가정, 아타치빠라 36가정이다.

이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상황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진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7월 한 달 동안 순례자를 통해 2022 상반기 선교보고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러시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할렐루야!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 손달익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 교회 성도님들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그동안의 여러 어려운 교회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지난 2월 24일(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또다시 전 세계가 충격적인 정치,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토(NATO) 서방 측과 러시아간에 신냉전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토 서방 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지만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핵무기까지 사용을 언급하며 서방 측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인 SWIFT에서 배제되어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개인 사업자, 유학생들까지 무역거래 및 필요경비를 송금하고 인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서방 측과 러시아는 서로 영공까지 폐쇄하여 겨우 열려가던 비행길까지 막혀 언제 다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제유가와 식량문제 등 전 세계에 고통을 주는 이 전쟁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 우크라이나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러시아 국민들도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당하지 않고 또한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의 신냉전 상황으로 가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모두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선교사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상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전쟁까지 발생해 더욱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습니다.

지난 4월 17일 부활절에는 협력교회인 뿌리미레니예(화복)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리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였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여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으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도록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고려인 회장 장세르게이 가정(부인 라우라, 쌍둥이 자녀 발레리,일리야)이 교회에 처음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세르게이 가정은 아버지 장발레리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많이 힘들어 했지만 결혼을 하여 쌍둥이 자녀도 낳고, 물려받은 아버지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가며 차세대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와 세상에 크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후부터는 그동안의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되었던 협력교회와의 연합 성경공부 모임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에는 이번 학기 한글학교 수업을 종강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하면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한국 문화도 알리고 전도도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에 과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

며 인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전쟁 이후 만약 신냉전 시대로 가서 러시아 선교의 문이 닫히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충만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빨리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이 정상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지정학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잘 마무리 되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사랑하신 이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서울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 1)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도록
- 2) 노브고로드장로교회에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 3)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고, 이후 러시아와 서방이 신냉전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 4) 연합 성경공부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과 지식이 성장하고 훈련된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 5)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복음까지 받아들여 영혼 구원을 받도록
- 6) 장세르게이(라우라,발레리,일리야)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와 세상에서 크게 쓰임 받도록
- 7) 김영호·서향정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러시아에서
김영호·서향정 선교사 드림

복음의 불모지에 주의 사랑과 구원을 나누려 합니다

인구의 99.8%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혹 안다고 해도 많은 선지자들 중 한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황무지 같은 마음의 사람들과 하루하루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며 먼 곳 000에서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코로나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듯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활취고 간 흔적이 너무 깊어서 마음이 쓰리기도 하지만 남은 여정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여기는, 코로나가 서서히 거두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도 마스크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자유롭게 착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정책을 발표함으로 통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20년 만에 최고치인 6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더해져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000의 인플레이션 폭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어

졌다는 점에서 외부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곳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000 000교회는, 기존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에 5년 만에 아기를 낳은 젊은 부부의 6개월 된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자녀에게도 본을 보이는 귀한 가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유롭게 밖에 나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도 교회 건물 1층에 전도 부스를 열어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간부터 전도에 더욱 힘쓰려고 1층 전도 부스를 재정비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어와 차도 마시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교제하며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비치해 놓아 나눠주며 관심자들을 찾고 주의 사랑과 구원을 나누려 합니다. 관심자들이 많이 오도록 그리고 특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간구해 주세요.

톨라이 이름의 자매는 치매 아버지를 간호하며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도고해 주세요. 전도 부스를 사용하시고 저희들의 열

정을 기억하셔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부흥하는 00 000교회 되도록 간구해 주세요.

저는 저는, 4월 초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폭풍을 맞아 원치 않는 남편 목사와의 이별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침마다 말씀으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넉넉히 감당하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동역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임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교회가 부흥되고 아름답고 복된 사명 넉넉히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소서.
2. 세우신 주의 몸 된 교회가 전도 부스의 사역을 통해 부흥하게 하소서.
3. 어려운 중에 있는 자매가 강건하게 하소서.
4. 맡겨 주신 일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소서.

먼 미국 땅 한 모퉁이에서 전광혜 올림

* 선교사님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역명과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일(토)에 첫 '서울가족 토요일새벽기도회'가 오전 6시에 있었습니다. 새벽기도회 후 손달익 담임목사님께서 영·유아부부터 고등부 학생들의 기도제목을 받아 축복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면 관계 상 모든 학생들 사진을 실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사진이 필요하신 성도들은 주일 1부 예배 후 704호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여름성경학교 초대 - 영·유아부



임대중 집사
(유아부 부장)

2022년 여름성경학교가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 오전 10시-오후 2시(주일은 12시)에 유아부실(706호)에서 진행됩니다.

매주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아이들 또는 몸에 열이 나고 아픈 와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울교회 영·유아부로 오는 아이들을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정이 가득한 아이들과 함께 '찾았다! 하나님 나라!' 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 보내주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2022년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

가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영·유아부에서는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성경 공부 및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신체활동, 미술 활동,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저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부모님, 아이들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서울교회 영·유아부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의 회복과 성장의 시간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경학교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여름수련회 초대 - 사랑부

함께 가는 사랑부!



장창수 집사
(사랑부 부장)

사랑부는 서울교회에서의 여름수련회 중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올해도 오는 토요일과 주일(7/16-17) 교회 603호에서 사랑부 여름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함께 가는 사랑부"(아 2:13)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시간이 길었음에도 사랑부 교사들의 뜨거운 헌신으로 사랑부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가르침을 여과없이 흡수하는 사랑부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사랑부 학생들은 또 한

번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발달장애인에 남다른 비전을 가지셨던 이종윤 원로목사님은 서울교회 설립 직후인 1992년 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인 사랑부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무학교, 나사렛재활원 등의 많은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사랑부를 거쳐갔고, 사랑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든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약한 자에게 유달리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던 것처럼 항상 사랑부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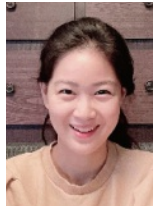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부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부는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사랑과 더 큰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부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고민정 집사 (5교구)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간 동안 교회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매주 교회학교 속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대면 예배로 속히 전환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오랜 비대면 예배를 거치고 교회학교가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고, 10년 넘게 섬기고 있는 유아부 봉사에도 더욱 감사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기학교가 진행 예정에 있다는 소식에 저희 부부는 망설이지 않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27개월 된 수아가 엄마랑 떨어져서 아기학교를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첫날부터 저에게 손을 흔들며 주며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유아부 예배로 익숙한 공간이어서 그런지 적응도 잘하였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였고 들었습니다. 강남희 전도사님, 유미영 권사님, 박만옥 집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이번 아기학교 주제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체 각 부분을 말씀

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그에 따른 만들기 수업, 체험 수업 등 아이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집사님은 아기학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아이의 참여 모습은 실제로 볼 수는 없었지만, 선생님들께서 사진으로 남겨주셔서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7층으로 올라가면 아기학교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수아는 그날 만든 교재를 자랑하며 웃으며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으로 드러졌던 예배 속에서 대면 예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담당하시는 교역자분들 또한 아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세심한 손길들이 느껴졌습니다. 안전한 재료 준비부터 맞춤 간식까지 하나하나 고민하시면서 꼼꼼히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주 동안 진행되었던 아기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시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교역자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기학교 2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정

- 식사 제공 : 5교구 조속자 권사 (남편 김태삼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11일	월	시 130-136		창 42-46	
7월12일	화	시 137-144		창 47-50	
7월13일	수	시 145-150		출 1-9	
7월14일	목	잠 1-3		출 10-14	
7월15일	금	잠 4-6		출 15:1-21:32	
7월16일	토	잠 7-9		출 21:33-26:37	
7월17일	주일	잠 10-13		출 27-32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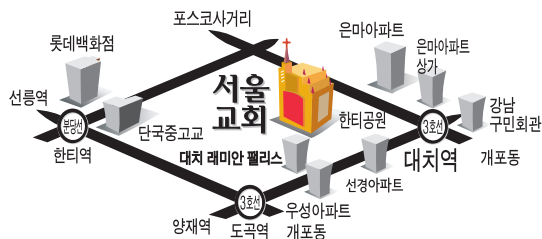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세상 앞에 신뢰받는 신행 일치의 삶을 사는 순례자 되게 하소서.
2. 7월 16일-17일 실시되는 사랑부 수련회와 영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가며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로 한 발짝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